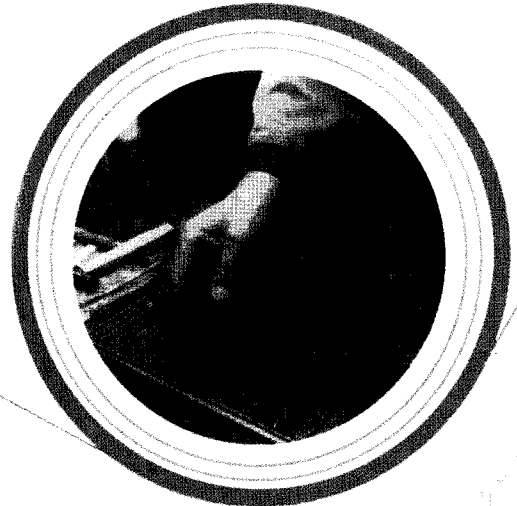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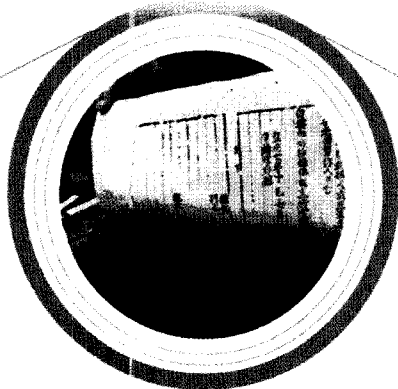


청주시, '직지' 우수성 홍보 총력

50억원 투입, 직지세계화사업 전개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안병무)은 2009년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으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세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직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대내외 널리 알리는데 49억8800만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참여 교실 운영

직지와 고인쇄문화에 대해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6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직지인형극 공연, 어린이직지문화학교, 교과서 속 직지체험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직지특화 거리 조성

직지문화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직지문화 특화 거리 및 광장 조성사업에 16억55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음달 발주해 8월에 준공되며,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건립에 따른 용지매입비 5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중 매입을 완료하고 연구지정학교 운영 3천만 원이 투입된다.

직지상 시상

또한 오는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지는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에는 1억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 저비용 고효율시스템 운영으로 간소하고 격조 높은 행사로 추진되어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가치와 직지상의 의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반크 통한 해외홍보

특히 반크를 통한 직지 해외홍보 및 오류수정 5천만 원, 뉴욕 JFK 공항 직지카페 해외홍보 4500만 원, 직지세계화 민간 활동 지원에 2700만 원, 제3회 청주시 1인1책 퍼내기 사업비로 1억2300만 원이 투입된다.

직지 전국순회전 개최

한편 직지 국내외 순회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국의 대규모 행사시 순회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직지홍보관 운영 4900만 원, 직지세계화 캠페인 스팟광고 5천만 원, 직지 기념우표 발행 등 직지홍보물 제작에 83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금속활자 복원 사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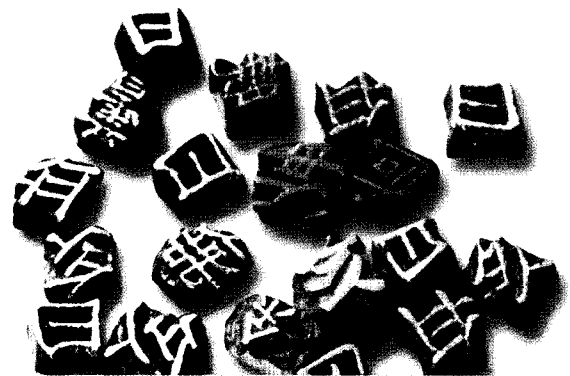
또한 지난 2007년부터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선왕실 주조 금속활자 복원사업에는 조선후기 활자복원을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로 11종의 활자복원이 이루어지고, 김병구박사 소장유물 등 문화재급 고서구입비 7억 원이 투입된다.

박물관 리모델링 추진

그 밖에도 박물관 상설전시실 리모델링에 3억 원이 투입되어 조명 및 노후된 전시시설을 일부 교체하고 기획·특별전시에 6천만 원, 학술연구서 간행 3천만 원, 직지네트워크 구축 1억9천만 원이 투입된다.

안병무 관장은 “앞으로도 직지를 소재로 청주시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높임은 물론 청주시를 세계기록문화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지심체요절이란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에 간행되었으며,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체제는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덕사에서 간행된 금속활자본은 현재 상권은 전하지 않고, 하권 1책(총 38장)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 문헌실에 전하고 있다. 「직지」의 중심 주제는 <직지심체>로 <직지인심 건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불도를 깨닫는 명구(名句)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선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직지」는 1901년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이 저술한 「조선서지」보유판에 수록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실물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다가 1972년 '세계 도서의 해(International Book Year)'를 기념하기 위한 '책 전시회'에 출품됨으로써 세계에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00년에는 「직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00청주인쇄출판박람회'를 개최되었으며, 200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인 받았다.